

e-북 개발 둘러싸고 암중모색 들어간 미국 출판계

지난해 인터넷 관련 출판시장 침체국면

국내외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e-북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북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이 금세 빛을 바랜 느낌이다.
스티븐 킹의 온라인 소설 실험이 실패하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해
e-북 개발에 뛰어들었던 출판사들의 움직임이 주춤한 상태다.
결국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 미래 출판의 관건이다.

지난 한해 미국 출판산업은 굴뚝형 출판계와 디지털 관련 출판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종이책에 기반한 출판계는 미국의 경제호황에 따라 호조를 지속한 반면, 인터넷 서점이나 유통업체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한 독자들은 e-북과 종이책 사이에서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종이책 출판사들 호황, 인터넷 관련업체 침체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지난 1월 8일자에 2000년 출판관련 주식 동향을 발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반면,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사들은 호황을 누렸다. 출판관련 상장사의 주식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퍼블리셔스 위클리 주식지수'(PWSI)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상장회사 가운데 13개사의 주가가 하락해 전년에 비해 종합주가지수가 75% 하락했다.

이는 다우존스 평균치인 6.2% 하락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치지만, 39.9%나 떨어진 나스닥 지수에 비하면 양호한 수치다.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주로 인터넷 관련 업체의 주가 하락에 기인했다. 이런 미국경제의 추세는 출판산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PWSI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관련 회사들은 주식시장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관련 소매상들은 주식시장에서 참패했는데, e-비즈니스의 선도자로 꼽히는 아마존닷컴은 주가가 79.6%나 하락했다. 아마

존의 최대 경쟁사인 반즈앤노블닷컴은 90.8%나 폭락해 주당 1달러 31센트로 지난해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2월, 19달러로 주식을 공모한 바서티 그룹은 10개월 이내에 주당 9센트로 마감해 깡통 주식이 돼버렸다.

도서 소매상들도 주식시장에서 고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형 도서점 체인인 보더스그룹은 주가가 28.1% 떨어졌고 헤이스팅스 엔터테인먼트는 70.9% 하락했다. 또한 북스어밀리언은 83.4%나 폭락했다. 반즈앤노블만이 주식시장에서 선전했는데, 주가가 전년도에 비해 28.5% 상승했다.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둘러싼 난리법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본 것은 인쇄업계와 오프라인 출판사들이었다. 반타 코퍼레이션은 127%, R.R. 도넬리는 88%로 각각 주가가 상승했다. 지난해 가장 크게 수익을 올린 회사는 <헤리포터> 시리즈를 거머쥔 스콜레스티사인데, 주당 88.63달러로 장을 마감해 전년에 비해 42.65% 상승했다. 하코트 제너럴사도 42.1%나 주가가 올랐는데, 리드 엘스비어사에 인수합병될 것이라는 소식이 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사도 재정상태가 개선된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돼 33.8% 상승했다.

이처럼 전체 출판업계에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성과가 엇갈린 가운데, 미래 출판의 총아로 떠오른 e-북에 대한 전망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 이미 e-북 단말기 시장의 제패를 둘러싸고 각 회사들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단말기 시장에서는 RCA 이북, 피너 리

더, 마이크로소프트 리더, 어도비 아크로벳 이북 리더, 프랭클린 이북맨 등이 주요 경쟁자들이다.

e-북 시장의 미래 비관적 전망 우세해

하지만 e-북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미국 언론보도의 대체적인 논조다. 지난 1월 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e-북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전자책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이 아직은 냉담하며, 작가나 출판인 및 에이전트들도 초기에 비해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한다.

테크놀로지 칼럼니스트인 클라이브 톰슨이 기고한 이 기사는 먼저 전자책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앞머리에 싣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책의 도시 뉴욕' 행사에 참석한 62살의 존 헬스티드는 신기술 전시장에서 로켓이북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언론에서 e-북 단말기가 화제가 됐지만 막상 그가 단말기를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참가업체 직원이 그에게 고품질 컬러 스크린을 장착한 단말기에 대해 열변을 토했지만, 그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책을 다운로드하는 장비란 말이죠, 맞나요?" 그는 뒷짐을 지고 e-북 단말기에서 조금 떨어진 채 서 있었다. 마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조금 후 그는 "정말 흥미로워" 하면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e-북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e-북은 새롭고 최신 기술이며 독서양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떠들

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독자들은 e-북을 직접 시연해보거나 심지어 만져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신기술과 소비자들 사이에 문화적인 격차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작가와 출판사들 사이에도 e-북에 대한 초기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e-북에 대한 기대심리를 한껏 고조시킨 스티븐 킹의 온라인 소설 실험도 이미 실패하고 말았다. 스티븐 킹은 지난해 11월 <플랜트> 시리즈 연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소설에 대한 유료고객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99년 봄 <총알타기>를 발표해 60만명이 다운로드했다.

스티븐 킹에 자극받은 출판인들은 잇따라 e-북 시장에 뛰어들었다. 타임위너는 퍼블리싱부를 발족했고 랜덤하우스도 현대문학 목록 가운데 100권을 e-북으로 제작하고 올 여름 웬디 캐미너, 루이스 래팸과 헨리 앨포드의 작품을 이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앤더슨 컨설팅사도 2005년까지 자사의 책 가운데 10%를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e-북의 서가는 썰렁할 정도로 비어 있다. 경쟁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해 반신반의하면서도 e-북산업에 뛰어들 출판인들은 최근 e-북 산업의 정체현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e-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e-북의 의도는 훌륭했다. 하지만 단말기업체와 출판사, 그리고 작가들은 혼란에 빠

져 있다"고 앤더슨 컨설턴트의 로버타 글래서는 말한다.

이렇게 e-북에 대한 갑작스런 생각반응은 독자들이 컴퓨터 스크린이나 e-북 단말기로 책을 읽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북 단말기 업체나 e-북 디자이너들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e-북의 미래를 전망한다. 그때 가면 스크린 기술이 종이책과 맞먹을 것이며 다양한 검색기능 등 e-북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현재 e-북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최근 발표된 e-북은 단 한 장만 다운로드받아 읽는다고 해도 금세 눈의 피로를 느낀다. 사이몬앤슈스터의 한 직원이 전하는 e-북 독서체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팜 파일럿에서 스티븐 킹의 <총알타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긴 침묵이 흐른 후에) 좋은 독서 경험이였다."

비싼 단말기 가격과 눈의 피로감이 걸림돌

결국 문제는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e-북 업체는 e-북의 장점을 내세워 머지않아 독서시장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현재 700달러나

하는 비싼 e-북 단말기를 구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전망에 따라 e-북 산업은 논리적 폐쇄회로에 갇혀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책을 모두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고, 출판인들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e-북을 생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출판인들이 e-북 산업에 도박을 걸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

랜덤하우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랜덤하우스는 현재 두 개 부서가 e-북 개발에 전념하고 있지만, 도서목록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디지털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스투어트 애플바움 대변인은 "만일 책을 다운로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언론의 관심만큼 많다면, 우리는 실제로 디지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그칠 것이다"고 말한다.

어쨌든 미국 출판계는 현재 e-북 개발을 둘러싸고 암중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 경제가 활황국면에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소비자들의 정확한 욕구를 누가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에 미래 출판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 박천홍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dp
design partner darum

더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는
다름의 새얼굴입니다

이제 막 산 하나를 넘은 듯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디자인만을 고집하며 걸어온 노력이
더 큰 산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른 다름의 시작입니다.
새마음, 첫마음의 각오로 다름이 도약합니다.

다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